

**미군의 미래군 발전이 육군에  
주는 의미**

*박기련(한남대학교)*



# 미군의 미래군 발전 전망과 육군에 주는 의미

## 서론

미군은 소위 군사변혁을 통하여 미래군의 군사력을 준비함으로써 현재의 압도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하고 있다. 미국은 21세기 세계평화의 수호자로 자임하고, 이를 위해 미국이 제국적 지위를 계속유지 하여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범세계적인 통제능력을 가진 군사력의 유지가 필수적이다. 미국은 범세계적인 공역의 지휘를 확고히 하여 미국의 제국적 영향력 계속 유지하려 한다.<sup>1)</sup>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미래군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장에서는 미군이 가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표군 이후의 미군 작전 양상을 앤탈(Antal) 대령의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서 분석하고, 2장에서는 2032년을 목표 연도로 추진 중인 목표군의 성격을 분석한 후 3장에서는 이것이 주는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 I. 21세기 후반기 미래 전쟁 시나리오

인간은 끈임 없이 속도에 도전해 왔다. 근 8, 000여 년의 기간 동안 진행된 농업혁명의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도보 기동력과 근력에 의존하는 전쟁을 해왔다. 이 때 속도는 인간의 도보 기동력 이었다. 300여 년간 진행된 산업혁명시대에는 인간의 도보기동력과 근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계화기동력을 이용하였다. 정보화 시대에 들어와서 인간은 지상의 마찰을 극복하기위해 공중공간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비행기는 양력을 이용하여 중력을 극복한 것이다. 미래 전에서 인간은 공중공간에서 공기가 주는 저항을 극복하려 할 것이다. 인간의 속도에 대한 도전은 이제 우주 공간을 이용하여 공기 저항을 극복하려는 시도까지에 와 있다.(표 1)

---

1) Barry R. Posen, "Command of Common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8 No. 1(Summer, 2003), pp. 4-46

표 1 : 인간의 속도 극복 노력

근력에 의한 전쟁	보병 부대	10의 1승 km/h
근력의 제한 극복	기계화 부대	10의 2승 km/h
지상 마찰 극복	항공기, 공중기동 부대	10의 3승 km/h
공기 저항 극복	우주 공간 기동 부대	10의 4승 km/h

이 장에서는 미 육군 대령 앤탈 대령의 “21세기 전투충격”(Battleshock 2 1)<sup>2)</sup>이라는 가상 전쟁 시나리오를 통하여 미래전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분석하는 미국의 목표군의 성격을 역으로 입증해 준다. 앤탈 대령이 “21세기 전쟁 충격”에서 구상한 미래전은 공기저항을 극복한 미래군의 작전 모습이다.

## 1. 시기

앤탈 대령이 구상한 가상 전투 시나리오의 시기는 21세기 후반에 해당된다. 이 때 미군은 목표군으로 변혁이 완성된(2032년) 이후 20년이 지난 이후 이니까 미군은 극 초 하이테크 군으로 변모된 시기이다.(현재군 : 하이테크 군, 목표군 : 초 하이테크 군, 2050년 군 : 극 초 하이테크 군) 이 시대는 우주공간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극초음속을 가진 항공기로 세계가 1 일 생활권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 2. 국제정세

21세기 후반인 이 때 아직까지 미국은 확고한 유일 초강국으로 제국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는 유일 초강대국 미국을 정점으로 유럽연합,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의 강국 집단과 아직도 산업혁명 시대에 머무르고 있는 가난한 국가, 실패한 국가로 양분되어 있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 등 선진국가 들이 자기들을 착취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항상 존재한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는 여러 행위자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다국적기업은 세계 경제의 주체적 행위자이다. 또한 공식 비공식의 국제적인 결사조직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유엔은 미국에 버금가는 국제적 기구로 국가권력을 압도하는 힘을 발휘 한다.

2) Robert L. Bateman III, 운주학 역, 『디지털 전쟁』(대전 문경 출판사, 2000), pp. 100-133.

세계는 인터넷에선 진화 한 하이퍼넷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이퍼넷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자 역할을 하던 인터넷과는 차원이 다르다. 하이퍼넷은 상업과 통신의 전달 매체이고, 정치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전달 매체이며, 가상시장(virtual marketplace)으로 부를 창출하는 곳이다.<sup>3)</sup> 미국은 하이퍼넷을 통제함으로써 제국적 지위를 유지한다.

### 3. 위협

적은 신전제주의 동맹(Neo-Absolutist Coalition)이다. 이 조직은 전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초국가적 결사체로 미국을 사악한 제국주의로 여기고 있다. 이들은 후진국의 실패가 미국의 하이퍼넷 독점에 있다고 인식한다.<sup>4)</sup> 이들은 익명성을 가지고 사이버 공간에서 게릴라 식으로 미국을 공격하여 왔다. 이들은 드디어 미국이 주도하는 하이퍼넷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컴트랜스를 통해 인류최초로 전자펄스탄(EMP Bombs) 공격을 실시하고 24 시간 이내에 세계 어느 곳, 어느 때라도 하이퍼넷에 접속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보국은 이들이 강력한 군사 독재자가 통치하는 실패한 국가인 박트리아 국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sup>5)</sup> 박트리아 군은 해군은 없고 약간의 공군과 21세기 초 개량된 장갑차와 포 그리고 최근에 개량된 방공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펄스 탄 공격은 인류 공공의 적으로 규정되어 개발이 금지된 것이었다. 이런 펄스 탄 공격은 미국이 북미 대륙 지하 창고에 보관한 대륙간 탄도탄 100기 보다고 더 큰 위협이다.

### 4. 임무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즉시 신전제주의 동맹 세력을 격멸하고 하이퍼넷을 교란시키는 컴트랜스를 찾아내라고 지시하였다.

### 5. 작전 경과

#### 가. 미군 합동군 구성

3) Robert L. Bateman III, 윤주학 역, 『디지털 전쟁』, pp. 104-105.

4) Robert L. Bateman III, 윤주학 역, 『디지털 전쟁』, p. 105.

5) 이것은 바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알 카에다를 보호한 것을 연상케 한다.

미 합참의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98.7%의 성공 확률을 가진 계획을 발전시켰다. 합참의장은 육군의 6개 여단 중 평화유지 및 안정작전에 참가하고 있는 4개 여단을 제외하고 가용한 2개 여단 중 1개 여단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sup>6)</sup> 합동작전을 위해 공군은 2대의 유인 폭격기와 8대의 무인 로봇 전투기를 출동 시켰고, 해군도 4대의 항공모함 중 1대와 2대의 병기 운반선을 작전지역에 투입하였다. 모든 병사들은 질병 저항능력과 화학 및 생물학 방호능력을 갖춘 스마트 군복을 입고, 소화기 탄으로부터 방호가 가능한 탄도 장갑을 착용하였다. 또한 완전한 전장 가시화를 보장해 주는 MK77 헬멧을 썼다. 헬멧에는 하이퍼넷 링크를 통해 피아 상황을 완벽하게 인식 할 수 있는 전장송신감지장치노드가 있다. 통신용 마이크로 음성 송수신은 물론, 전장영상의 송수신이 가능하다. 헬멧에는 또한 야간 투시가 가능하고, 표적을 지시해주며 전술적 정보를 송수신해 주는 창인 감응 디스플레이가 부착되어 있다.<sup>7)</sup>

#### 나. 전투경과

기동타격 부대장 피어스 대령은 “브릴리언트 타격”(Brilliant fire strike)이라는 작전명하에 작전을 실시하였다. 여단은 우주공간으로 운행하는 수직 이착륙 수퍼 오스프레이(V-22E9 Super Osprey) 수송기로 작전지역에 2시간 만에 도착하였다. 여단 인원은 총 60명이다. 여단은 15명으로 이루어진 중대 3개와 여단본부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중대는 1990년대 중 기갑여단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여단은 완전히 간접사격방식으로 전투를 한다. 근접전투는 부득이 한 경우에만 실시되고 모든 전투 원칙적으로 원격전투를 한다. 여단장은 완전히 자동화 되고,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로 구성된 정보체계에 연결된 지휘통제통신 및 정보정찰과 정밀타격 체계에 의해 전장을 실시간에 파악하고, 간접적으로 표적을 타격한다. 전장에서 충격은 사라졌다고 생각하였다.

모든 전투는 시뮬레이션에 의해 진행된 된다. 표적은 표적탐지 위성을 통해 자동 포착되고, 표적에 맞는 플랫폼이 자동으로 지시되고 피해평가가 자동으로 보고 된다. 근접전투는 애초부터 계획되지 않았다. 피어스 대령은 이

6) 미래군은 그 규모가 점점 축소 될 것이다. 엔탈 대령은 극단적인 형태로 미 육군이 축소된 형태를 가상하고 있다.

7) 미군은 이런 병사들의 무장을 체계로서의 병사(Soldier as a system)라는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미 육군 변혁 로드맵 2003 참조)

변 임무에 대하여 지금 까지 그랬듯이 당연히 미국의 승리로 손쉽게 끝 날 것으로 생각하였다. 몇 시간 이내에 상황은 종료되고 기분 좋게 대통령 각하에게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각하 ! 야군의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라고 보고 할 것을 상상하고 얼굴에 미소를 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그 것처럼 돌아가지 않았다. 문제는 시뮬레이션에서 발생하였다.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되고 시뮬레이션에서 이탈 되었다. 3개 중대로부터 전투지역에 도착 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부터 연락이 두절 된 것이다...

적은 결국 컴트랜스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무력화시키고 피어스 대령의 3개 중대 전면에 근접하는데 성공하였다. 적은 민간인을 포함한 대규모 병력과 전차 및 장갑차를 앞세우고 물밀 듯이 접근하였다. 피어스 대령의 3개 중대는 예상치 못한 근접전투 상황에 직면하여 초고속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고,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적의 집중 공격에 대항하였으나 수적으로 압도하는 적에게 차츰차츰 밀리면서 전사자들이 증가하였다. 시스템이 붕괴된 스피어스 여단은 산업화시대 무기를 가진 미개한 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였다.

먼저 크레파노비치 여군 대위가 지휘하는 A 중대에서 비보가 날라 들었다.

“적은 1, 000 명 이상입니다. 우리 중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이 섞여 있습니다. 교전 중 부대원 3명이 전사하였습니다.” 얼마 안 되어 A 중대는 15명의 중대원이 9명으로 줄어들었다.

산베르그 대위의 B 중대는 컴트랜스를 확보하기 위해 적의 본부 건물로 전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전진 속도는 급속히 저하되고 전사자가 속출 하였다. 적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B 중대의 병력도 13 명으로 감소되었다.

마르티네츠 대위의 C 중대는 대규모 적 전차로부터 기습적인 공격을 받았다. 적은 근접하여 물밀 듯이 접근하였다. 사거리 12 km로 한 상자에 16기씩 포장된 초고속 대전차 미사일을 적에게 무수히 사격하여 수 백 대의 전차를 파괴하였으나 압도적인 숫자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밀려오는 적 전차를 완전히 격퇴하기에는 중과부족이었다.

애초부터 적의 근접을 허용하지 말았어야 했다. 독단적인 교리로 변한 오로지 화력(only fire) 개념에 의해 적은 ‘사전에 발견되고 간접사격에 의해 격멸해야’ 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붕괴는 원거리에서

적을 발견 할 수 없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대규모 적의 접근을 허용 하게 됨으로써 작전은 실패하게 된 것이다.

시뮬레이션을 회복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불가능하였다. 여단장은 전장 상황을 파악 할 수 없었다. 수동으로 응급 복구한 채널로 전투를 지휘하고 있으나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는 한, 적과 근접된 상황에서 임무달성 가능성은 희박 하였다.

스피어스 대령은 패배를 인정하고 대통령에게 철수를 건의 하였다. 어느 사이 여단 병력은 50%이하로 저하 되었다. 대통령으로부터 작전을 중지하고 철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여단장은 본국으로 귀환 할 초고속 오프스레이 수송기들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임시 지휘소가 있는 건물 옥상에서 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상황은 급박하였다. 적 전차와 병력들이 옥상 지휘소 부근으로 집중하고 있었고, 일부 병력은 옥상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드디어 여단장을 태울 헬기가 나타났다.

헬기가 옥상에 착륙한 순간 옥상 한편에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을 가진 10대 소년이 나타났다. 그의 다른 손에는 대검이 들려있었다.

피어스 대령이 소년이 대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식하는 순간 어린 병사는 대검을 피어스 대령에게 던졌다. 대검은 피어스대령 오른 쪽 어깨에 꽂혔다. 피어스 대령은 갑옷을 뚫고 어깨의 박힌 대검을 빼내고 비틀거리며 헬기로 갔다.

그 순간 헬기는 섬광을 일으키며 폭발하였다. 헬기의 폭발 잔해가 피어스 대령의 몸으로 떨어지면서 피어스 대령의 몸은 두 동강이 나버렸다.....

## II. 군사변혁의 특징과 목표군의 성격

### 1. 군사변혁의 특징

럼스펠드 미국방부장관은 “부시 대통령은 취임 후 21세기 도전에 대비하여 국방부가 무엇을 준비할지에 대한 임무를 부여하였다”<sup>8)</sup>고 하였다. 이것은 현재 미국이 누리고 있는 전략적 우위성을 장차에도 계속 유지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기 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럼스펠드는 현재의 테러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미래의 적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변혁을 추진하게 된다. 부시행정부가 추진하는 군사변혁은 클린턴 행정부의 군사혁신의

8) Donald H. Rumsfeld, *Annual Report(DoD, 2004)*, p. 1.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이었으나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첫째, 군사변혁을 대전략 차원에서 추진 한다.** 미국방부는 군사변혁을 “세계평화와 안정에 긴요한 전략적 위상을 지속하기 위해 미국이 가진 유리점은 확대하고, 미국의 비대칭적인 약점은 보호하기 위해 개념, 능력, 인원, 조직의 새로운 통합을 통해 군사경쟁과 협조의 본질변화를 조성하는 과정”<sup>9)</sup>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를 음미해 보면 군사변혁이 이미 군사적 차원의 조치라는 개념을 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정책당국자들은 미국이 21세기에서도 현재의 전 세계적인 지도력을 계속유지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격차가 나는 군사력의 유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sup>10)</sup> 여기에는 또 다른 미래의 상황변화가 추가 되어 이런 생각을 강화시킨다. 즉 21세기에는 미국의 경제적 우위가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것을 수용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소위 브릭스(BRICs) 국가의 경제가 점하는 세계경제상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국의 경제력을 약화시킬 것임이 틀림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세계적인 지도력을 계속유지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도전세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군사력 의존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사변혁은 군대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발전시키는 군사전략 차원이 아니라 대전략차원에서 21세기 미국의 세계 경영의 주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전지구의 군사적 지휘통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미군이 군사변혁을 위해 판단한 미래군이 수행해야 할 핵심 작전목표(표2)를 보면 잘 알 수 있다.<sup>11)</sup> 9.11 이후 미국은 본토 방위를 제일 중요한 작전 임무로 보고

표 2 : 미래 군이 수행 할 작전목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중요한 작전기지 보호 및 핵·화생무기의 무력화</li><li>· 접근을 거부하는 환경에 대한 전투력 투사 및 유지</li><li>· 적의 피난처 거부</li><li>· 정보기술의 수단화</li><li>· 정보체계의 보호와 정보작전의 수행</li><li>· 우주능력의 신장</li></ul> |
|---|

출처: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2001), pp. 42-45.

9) Donald H. Rumsfeld, *Transformation Planing Guidance*(DoD, 2003) 참조

10) *Annual Report*(2002), pp. 29-31.에서 21세기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국가안보 제도를 변혁해야한다고 하여 군사변혁을 장기적 국가목표 차원에서 추진하고, 군사적 이슈 보다 상위의 차원에서 보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11) Donald H. Rumsfeld,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DoD, 2001), pp. 42-46.

있다. 미국은 9·11 이전에 이미 미래대비 전략연구에서 본토에 대한 방어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9·11 테러공격은 이를 실증적으로 증명해준 것이다. 중요한 작전기지는 미국본토 뿐 만 아니라 해외 주둔군, 동맹국 및 우방국까지 포함 된다. 이를 위해서 전 지구적인 미사일 방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전력투사는 해외의 대규모기지, 비행장, 항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 미래에는 범지구적인 개입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전력투사 접근로들의 “행동의 자유” 확보를 중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냉전이후 미국은 냉전시 전방고정배치개념인 “전방방어 전략”을 유동적 전력운용개념인 “전력 투사전략”으로 전략을 변경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미군전력이 투입될 때 제한된 비행장과 항만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게 하며, 기지 의존도가 낮은 스텔스, 원거리 발사능력, 초음속 장거리 및 무인 시스템에 비중을 두고, 통합해상기지로부터 직접 전력을 전구에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며, 연안지역 군사개입 능력을 지속적으로 신장하게 하는 한편, 지상군을 더 경량화하고, 더 치명적으로 만들며, 더욱 다기능화하고 생존성과 지속능력을 강화시키려하고 있다.

장차 적은 그들 영토의 중심과 이동체계, 도시 등을 은신처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테러분자의 경우 특히 그렇다. 이에 대해 미국은 범지구적인 실시간 감시체계와 타격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적의 피난처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려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모든 미군이 하늘과 우주로부터의 감시를 통해 이동표적을 탐지하고 추적 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서 전쟁이 혁명적으로 변화 할 것이다.”<sup>12)</sup> 라고 말하고 있다. 정보기술과 혁신적인 사고를 활용하여, 상호운영이 가능한 합동 지휘통제통신컴퓨터감시정찰(C4ISR) 체계, 적절히 변형시킬 수 있는 합동작전개념을 발전시킨다. 정보기술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적을 실시간으로 파악 할 수 있는 능력과 전 지구에 분산된 자산을 적시에 전구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달성 할 수 있게 한다.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절대적인 정보우세에 있다. 미국은 미래전에서 정보 취약점을 공격하는 잠재적의 능력을 분쇄하고, 정보작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려하고 있다.

미국은 우주능력은 미래전에서 중요한 전장공간이 될 것이며, 그 영향 또한 막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주공간에서의 우세를 지키고

---

12) QDR(2001), p. 46.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상의 여섯 가지 미래군 작전목표는 미국의 군사력변환 노력과 합동전력의 개선을 이끌어가는 지침이다. 변혁된 미군의 모습에 대해 미군은

“지상군은 좀 더 경량화되고, 좀 더 치명적이며, 고도의 기동성을 지니게 되며, 전통적인 항구와 공군기지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까지 개입 할 수 있고, 장거리 정밀공격 능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화 될 것이다. 해군과 상륙전력은 접근거부 환경에서도 미군의 접근을 보장할 것이며, 적 해안선 가까이에서도 작전을 수행하고, 나아가 내륙 깊숙이 전력을 투사할 것이다. 공군과 우주전력은 이동 목표물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소재를 파악하고 추적하며, 경고 없이 장거리에서 신속하게 이들 목표물을 타격 할 수 있게 될 것이다.”<sup>13)</sup>

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 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군사변혁을 통해 추구하려는 것이 전 지구에 대한 군사적 지휘통제능력을 구비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미군은 군사변혁을 통해 본토방어라는 지상과제를 전 지구에 대한 군사적 지휘통제력을 확보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것이다.<sup>14)</sup>

**셋째, 합동작전능력의 상비군화를 추진한다.** 왜냐하면 미래전은 유기적 합동작전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2년 연례국방보고서에서는 합동작전측면에 중점을 두고 군사변혁의 3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sup>15)</sup> 첫째, 합동작전 및 조직의 강화이다. 장차전에서는 합동전이 필수적이 됨에 따라서, 평시부터 합동작전을 같이 실시하고, 합동전력은 소규모로 임무를 중심으로 단위부대를 구성하고, 필요시 주어진 상황에 맞게 부대를 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며, 전개속도, 운용속도, 지속속도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조직하고, 합동 및 다국적 지휘통제와 고도의 네트워크화 방향으로 조직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합동 및 다국적 지휘통제이다. 미군은 미래의 군사작전은 신속한 이동, 통합 그리고 합동 및 다국적 전력의 활용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합동 및 다국적 지휘통제의 융통성 있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합동지휘통제구조는 각군의 작전수행 차원까지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상비합동대응군본부(SJFHQ: Standing Joint Force Headquarters)와 “상비합동대

13) QDR(2001), p. 48.

14) Barry R. Posen, "Command of the Common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8. No. 1(Summer 2003), pp. 5-46.에서 공역(공해, 공역, 우주)의 지휘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15) QDR(2001), pp. 48-49.

응군(SJF)” 편성이다. 미 국방부는 전 지구를 분할하여 담당하고 있는 5개의 전쟁전구 사령부에 상비합동대응군과 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발전시키고 있다.<sup>16)</sup> 상비합동대응군 본부는 적보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합동군 지휘조직이다. 상비합동대응군 본부는 합동 및 다국적 전력에게 전장공간에 대한 시기적절한 화면을 공통으로 제공하는 C4ISR 구조를 갖추고, 즉각적이고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통합군수지원체계를 구비하여, 장차 편성될 상비합동군을 하사라도 효과적으로 운용하게 될 것이다. 이 부대는 원거리에서 사전경고 없이 재래식전력으로 공격을 가해 적의 피난처 거부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넷째, 혁신의 제도화를 추구한다.** 부시 행정부는 관료제도의 타성을 제거하고, 현행임무 수행과 미래대비의 균형을 유지하며, 군사변혁의 견고성과 지속성을 확고히 위하여 국방부의 위험관리 틀(risk management framework)을 만들었다. 미국은 이 틀 속에서 군사변혁에 대해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투자를 보장하고 있다. 이런 관리 틀 속에서 2003년의 경우 미국은 군사변혁에 대략 1,000억 달러 가량을 투자하였다. 이것은 프랑스와 독일의 국방예산을 합친 것 보다 많은 것으로 군사변혁이 구호나, 수사를 넘어서 실제적으로 장기적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다.<sup>17)</sup>

## 2. 목표군의 성격

군사변혁을 통하여 달성하려하는 최종목표는 “먼저 보고, 먼저 판단하며, 먼저 행동하고, 결정적으로 종결 짓는(First see, First understand, First act, Decisively finish)” 목표군(OB: Objective Force)건설이다.<sup>18)</sup> 이 목표군은 부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럽스펠드 국방부 장관의 치침에 의해 21세기에 적 위협에 대응하려는 미래군 이다. 럽스펠드는 2기 부시행정부에 연임 되어 4년간 더 미군을 이끌 수 있게 됨으로서, 그가 부시행정부 1기에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시작한 군사변혁을 그의 의도대로 일관성 있게, 차질 없이 수행 할 수 있게 되었다.<sup>19)</sup> 미군의 각종 변혁계획, 미래군 작전운용소요서등

16) Douglas K. Zimmerman, "Understanding the Standing Joint Force Headquarters," *Military Review*(July/August, 2004), pp. 29-30.

17) *Annual Report*(2004), p. 2-4.

18) Department of Army, *Operational Requirement Document for Future Combat System*(2003. 3)에서 미래군에 대한 소요를 제기하고 있음. 세부내용은 이 보고서를 참고.

19) 2차세계대전시 독일은 구데리안 장군의 열정에 의해 개발된 팬저 기갑사단을 국방부장관과 히틀러가 지지함으로써 프랑스를 6주 만에 점령하는 전격전의 신화를 창조하였다고 독일군은 전격전군으로 지칭되었다. 미국의 군사변혁군은 군총사령관인 부시의 지침을 장관인 럽스펠드가 시행하는 것으로 미군에 미치는 영향은 구

을 분석할 때, 군사변혁의 결과 건설될 미군인 목표군<sup>20)</sup>의 목표는 4가지 측면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미군이 달성하고자 하는 임무, 과업, 목표 측면에서는 지구방위군이라 할 수 있고, 구조, 조직 측면에서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군이며, 운용방법 측면에서는 지구적 투사 군이고, 대 전략적 차원에서 21세기 미국이 변신을 꾀하는 제국의 군대이다.

## 가. 지구 방위군

변혁군(목표군)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의 건국이상인 자유민주주의를 세계에 전파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런 과업은 미국이 세계적인 패권을 발휘하기 시작한 2차세계대전 이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전후 미군은 알타의 밀약에 따라 종전 당시 미군과 소련의 점령지를 기준으로 하여 전 세계의 1/3은 소련이, 2/3는 미국이 관할하도록 상호간에 약속함에 따라 미국은 자유민주진영의 대형(big brother)역할을 맞게 된 것이다.<sup>21)</sup> 이 시기는 안보가 경제적 이슈를 압도하던 시기로, 군사력의 역할이 매우 중시되었다. 특히 1947년 이후 60년대 까지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미소 양 진영 사이에 범세계적인 대치선인 봉쇄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미군은 자유진영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전위대 역할을 하였다.

냉전이 종식되고 소련이 붕괴됨에 따라 미군은 이제 전 세계를 관할해야 하는 지구방위군으로 변화되었다. 책임지역이 반구에서 전지구로 확대된 것이다. 냉전 종식 후 10년간 동구의 구소련 공화국들이 속속 자유진영에 합류하였고, 러시아도 자유민주주국가를 향하여 착실하게 전진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은 자유민주주의 확장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또한 1991년의 걸프전, 1999년의 코소보전등 크고 작은 분쟁에 개입하여 유일초강대국이 된 미국의 국익 보호에 앞장을 서고 있다. 이제 미국의 국익은 전 세계의 이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게 되었고, 미국은 싫든지 좋든지 간에 전 세계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미국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sup>22)</sup>

---

데리안이 전격전에 미친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그러므로 변혁군은 “부시-럼스펠드 미군”으로 지칭되어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

20) 미 육군의 경우 2032년 까지 현재의 미 육군을 목표군으로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육군변혁을 추진 중이다. 군사변혁은 계속적인 일련의 과정이다. 2032년 이후에도 그 때 나타날 또 다른 위협에 대응하여 군변혁은 계속 될 것이다. Department of Army, 2002 Army Modernization Plan 참조

21) 월러스틴(2003), pp 25-26.

22) *National Security Strategy*(2002)에서 미국이 “유례없는 영향력”을 가진 국가로써 “17세기 국민국가 성립된 이후 세계 평화를 이룰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이제 미국은 “국내문제와 국

냉전 시기에는 미국의 내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진영으로, 외부는 공산주의 진영으로 피아가 분명하게 구분되었다. 그러나 소련이 소멸된 지금 미국에게 가시적인 외부진영은 소멸되었고, 불확실한 적을 내부에 두게 된 것이다.<sup>23)</sup> 부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47번이나 구사하면서 미국이 자유의 전도사임을 내외에 강력히 천명하였다. 이는 9.11 이후 시작된 테러전쟁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자 본격적으로 민주주의 전파라는 건국의 이념을 본격적으로 실현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 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판단된다.<sup>24)</sup>

냉전 시 미군은 자유민주주의 방어라는 수세적 안보전략의 주 수단으로 첫째 핵전쟁을 억제하고, 둘째 유럽을 방어하며, 셋째, 중동의 유류보급 원을 지키고, 넷째 한국 등 제3세계로 공산세력의 침투를 방어하는 과업을 수행했었다.<sup>25)</sup> 이에 반하여 미래 미군은 자유민주주의 전파 및 수호 보다 적극적인 안보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테러전쟁 등 소위 소규모 우발사태에 대한 대응을 핵심과업으로 삼게 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적을 내부전선에서 찾게 되었는데 바로 범세계적인 테러로부터 미국을 방어하는 것이다. 미군에 대한 새로운 과업인 테러에 대한 전쟁은 필연적으로 대량살상무기, 독재국가와 결합된다.<sup>26)</sup>

미래군은 적에 대하여 “억제와 격멸”이라는 공세적인 목표로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적극적 확대라는 국가전략목표와 연결된다. 냉전 시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 확산은 소련이라는 거대한 장애로 “방위와 억제”라는 수세적 방어로 목표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소련이 붕괴된 지금 미국은 그들의 건국이상인 자유민주주의를 확대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하였고, 군사적으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게 된 것이다.<sup>27)</sup>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압도적인 해군력으로 5대양의 공해를 완전히 장악, 전력투사 기**

---

제문제를 구분할 수 없는 시기를 맞이하였다.”고 하면서 미국의 전 세계적 개입은 선택의 문제가 생존의 문제임을 암시하고 있다.

23) 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 *Empire*(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 Press, 2000), pp. 186-190.

24) George W. Bush, *President Sworn-In to Second Term*(2005. 1. 20)

25) Barry R. Posen and Stephen Van, Evara "Defense Policy and the Regan Administration," Kenneth A Oye, Robert J. Lieber and Donald Rothchill(eds), *Eagle Default United States Policy in 1980s* (Boston Little Brown,1983), pp. 6-10.

26) Ivo H. Daalder, "The end of Atlanticism," *Survival*, Vol. 45 No. 2(Summer, 2003), pp. 150-151

27) 박기연, “9.11 테러 이후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목표, 수단, 방법 측면,” 『국제정치논총』 제 44 집 4호 (2004), pp. 103-104.

지로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1개 국가가 이 처럼 전지구의 해양을 지배한 경우는 인류 역사상 유의 일 이었다. 자본주의의 본격적인 발달로 해상수송로 유지에 해군력이 국가전략적인 가치로 부각된 17세기 이후 해양우세는 포르투갈에서 스페인으로,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전환 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 해군력은 어느 한 국가가 우위를 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적인 우위였었다. 패권적 지위를 가졌던 어떤 국가도 경쟁국가 들의 해군력의 총계 보다는 열세하다. 그러므로 이 때의 해양 패권은 어디까지나 상대적 우세였었고, 주로 서구에 국한하는 지역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해군력의 압도성은 절대적이다. 냉전시대 소련이 미국의 해군력에 도전하기 위해 소련판 티르 피츠 계획을 가지고 해군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으나 소련의 해군력은 미국의 해군력에 1/2-1/3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소련해군의 위협이 소멸된 지금 미국해군의 우세는 더욱 압도적인 것이 되었다.<sup>28)</sup> 이것은 미 해군의 역할변화에서 볼 수 있다. 즉 미 해군의 주 임무가 “바다로부터 지상으로” 전력을 투사하는 것으로 변화된 것이다. 전통적인 해군의 주 임무인 해양우세 유지는 이제 부차적이 것이 되었다. 이제 군사변혁으로 변모된 미 해군은 압도성과 절대적 우세의 격차를 더욱 늘려 나갈 것 이다.

둘째, 공군은 범지구적 도달거리(Global Reach)를 가진 전력투사 공군으로 변혁되어 공역과 우주를 장악하여, 실시간 지구적 타격을 보장하여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지구둘레 길이가 대략 4만 km 라고 볼 때 미 공군의 지구적 도달거리는 2만 km 이다. 미 공군은 이 거리를 통상적인 작전운용거리(reach)화 하여 본토를 주 기지로 한 전력투사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해외기지 의존도는 최소화하여 불확실성과 비용을 줄이고 즉각적인 대응능력을 증진시킬 것이다.<sup>29)</sup> 이를 위하여 우주공간 이용이 확대되고 장거리 비행능력 확장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우주공간의 사용을 일반화하여, 공지전투교리로 성층권을 전장화한데 이어 우주공간까지 실제로 전투력이 유통되는 공간화 하여 우주전쟁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28) 미국해군은 해저는 공격핵잠수함(SSN)으로, 해상은 항공모함으로 전 세계 공해를 지배한다. 미국은 현재 54척 공격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새로 4척의 신형 핵잠수함을 건조 중에 있다. 미국이 외에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가 핵 잠수함을 건조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다. 미국의 현역 함모에 비교될만한 항공모함은 미국이외에 어떤 국가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러시아는 구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공격 핵잠수함을 20-30척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의 공격핵잠수함과는 비교가 어렵다. A. D. Baker, "World Navies in Review," *National Institute Proceedings*, Vol. 128(March, 2002), pp. 33-36; IISS, *Military Balance 2002-2003*, p. 113. 참조

29) 핵탄두를 제거하고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하 5 이상의 속도를 보유한 초고속 비행기와 무인 폭격기 등이 일반화되는 2020년대에는 지구상의 어떤 표적도 2시간이내에 타격이 가능하다. 미국은 이미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재래식탄두를 장착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2010 까지 시제 제작을 목표로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발휘하는 초고속 비행기 제작에 들어갔다. Guthe Kurt, *The Nuclear Posture Review How is the "New Triad" Now?*(Washington D.C., SCBA, 2002), 조선일보(2005. 3. 18), A-23면 참조

셋째, 지상군은 군사변혁을 통하여 전 지구적인 투사능력을 보유하게 되어 결정적인 목표를 신속히 탈취 및 확보하는데 운용 될 것이다. 육군은 본토에 주력을 두고 전 세계 어느 곳, 어느 때에라도 직접적으로 투사하여 적을 “먼저 보고, 먼저 판단하며, 먼저 행동하여, 결정적으로 격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육군을 변혁시키고 있다. 이를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상징적이며, 대표적인 미 육군변혁은 96시간 안에 세계 어느 곳으로든지 1개 여단을 전개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다.<sup>30)</sup> 육군의 UA 및 UE 편성의 전략적 의미는 범세계적인 합동군 투사능력의 확보에 있다.<sup>31)</sup>

넷째, 첨단 재래식 장거리미사일, 미사일 방어와 통합된 핵무기로 테러 집단, 불량국가, 실패한국가등 모든 위협에 대한 완전한 억제력을 발휘하여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전략 핵무기는 전 지구를 30-40분 내의 사거리에 들으로써 무력의 전지구화를 달성한 최초의 무기가 되었다. 핵무기는 유럽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의 시기를 달성하게 하였고, 냉전 시는 소련의 팽창을 억제하는 근간이었다.<sup>32)</sup> 부시행정부에서 실시한 2차핵태세검토(NPRⅡ)의 핵 전력의 핵심은 소위 신삼각축의 형성이다. 이 신삼각축은 기존의 삼각축에 첨단 재래식 장거리 타격 능력을 추가하여 1개축으로 하고, 2개축을 추가하여 새로운 삼각축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새로 추가되는 2개축은 하나는 미사일방어체제(MD)구축이고 다른 하나는 이런 2개축을 보장하는 대응하부구조이다. 이러한 신삼각축이 목표로 하는 것은 21세기의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한 테러집단 및 불량국가 등 극단적 세력에 대한 확증적인 억제력의 확보이다.<sup>33)</sup>

미군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측면에서 소련의 붕괴로 일단 큰 승리를 하였다. 냉전의 승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였다. 그 결과 동구권의 제국과 중앙아시아의 구소련 공화국이었던 국가들이 속속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합류하고 있고 러시아도 민주화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제 미국은 마지막 지역인 이슬람 국가들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복귀를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네오콘 들은 냉전을 제3차 세계대전으로

30) Lynn E. Davis and Jeremy Shapiro (eds) *The Army and the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RB-3040-A Rand Cooperation(2003),

31)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agency/army/ua.htm>(검색일 2005.4.5),  
[http://www.tradoc.army.mil/poa/web\\_special/leadership\\_of\\_future](http://www.tradoc.army.mil/poa/web_special/leadership_of_future). (검색일 2005.4.5) 참고

32) John J. Mearsheimer, "Back to Future: Instability in Europe After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15 1 에서 핵무기 출현이 근대 유럽의 역사상 가장 긴 평화 기간(45년간)을 유지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945년을 중심으로 앞 뒤 45년을 비교하였고, 프랑스 혁명 이후 기간을 9개 기간을 구분하여 분석 할 때 냉전기간이 가장 긴 평화 기간이라고 주장한다.

33) Kurt(2002), p. 8.



보고, 테러와의 전쟁을 제4차 세계대전으로 보고 있다.<sup>34)</sup> 미군은 냉전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목적으로 지구의 1/3을 차지한 공산권 국가들과 싸웠다. 이것은 미국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소련이 붕괴되자 미국은 이제 전 지구를 장악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남은 지역에 전파하는 전쟁을 시작하였다. 테러와의 전쟁의 대 전략적 의미는 자유 민주주의의 확장이다.<sup>35)</sup>

## 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군

구조 및 조직측면에서 미군은 전 지구를 포괄하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ubiquitous network)군<sup>36)</sup>이 될 것이다. 유비쿼터스(편재적) 측면에서 보면 미군은 전 지구를 포괄하여 지상, 해상, 공중 뿐 만 아니라 지하, 우주, 사이버 공간까지 존재하면서 지배한다.<sup>37)</sup>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면 제병협동, 합동 및 연합차원을 뛰어 넘어 다국적군, 유관기관, 비정부기구민간기구, 민간상업위성 등등이 정보 인프라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미래 전쟁양상의 핵심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세계적인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이로 인한 도시작전 수행의 일반화 현상이다. 세계인구는 향후 20년 동안 60-90억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며, 그 중 95%가 개발도상국의 인구성장일 것이고, 2020년까지 세계인구의 60%가 도시지역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적은 군사력을 복잡한 도시지역의 광 정면에 분산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도시의 지상 복합구조물과 지하구조물은 적의 유리한 은신처가 될 것이다.<sup>38)</sup> 여기에 우주공간이 본격적인 군사 경쟁공간이 되고, 사이버 공간이 일반적인 전장으로 변화될 것이다. 미군은 이렇게 확대될 공간에 군사력을 배치 또는 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 편성과 구조를 발전시키고, 각종 첨단장비를 개발 중이다. 첨단장비에는 무인감시 장비, 소형 지하 탐사 로봇 등이

34) 오타 류, 민혜홍 역, 『네오콘의 음모』(서울 도서출판 아이필드, 2004), pp. 5-10. 에서 미국이 새로운 제국주의로의 변화를 경고하고 있다.

35)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공공연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기 위한 제4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라고 하고 있다. 1, 2차 대전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독재국가 독일을 제거하였고, 3차 대전은 공산국가에 대항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장기 지구전인 냉전을 수행하여 소련을 붕괴 시켰다.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최후의 위협은 중동일대의 이슬람 지역과 몇몇 독재국가이다 제4차대전은 이들에 대한 전쟁인데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은 이 전쟁의 개시를 알리는 것이라고 주장 한다. 이주영, 『미국의 좌파와 우파』(서울: 살림, 2003) 참고.

36) 하영선 교수는 미국의 군사변혁의 목표를 전 지구 모두를 커버하는 편재적 그물망 구성으로 보고, 궁극적으로는 해외주둔이 불필요한 상황 까지 전개를 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영선, 『조선일보』(2004년 11월 4일), A8면 참고

37) Posen(2003), pp. 5-7.

38) TRADOC PM 525-3-25, *The Army's Concept for Maneuver Support Operation for the Future Force* chap. 2 참고

포함되며, 지하구조물을 파괴하기위한 지능형 스마트 탄을 개발 중이고, 산악지대 지하 동굴의 은신처를 파괴하기위한 극 소형 전술핵무기를 포함한 특수탄약을 개발 중이다.<sup>39)</sup> 미군은 이미 지하전장을 통제하기위해 준비를 시작한 것이다. 또한 미군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서 확보한 우세를 계속 유지할 것 것이다. 미군은 전 지구를 대상으로 미군의 군사력과 동맹국군, 우방국군과 네트워크화를 기도 할 것이다.

**첫째, 미군 자체전력을 네트워크화 할 것이다.** 먼저 제병협동과 합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네트워크 강화한다. 즉 UA 및 UE과 같이 제병협동과 3개군 간의 유기적인 합동을 위한 편성 및 구조<sup>40)</sup>를 발전시키고, 합동작전개념(JOC:Joint Operation Concept)을 새로 발전시켜 네트워크 능력을 강화시키려 한다. 다음 부대구조를 모듈화 하고, 용이하게 편조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신속한 해외투사를 가능하게하고, 신속결정작전(RDO) 개념과 상비합동군사령부와 상비합동군 편성으로 결정적 작전의 성공을 보장한다.<sup>41)</sup> 마지막으로 전지구정보망(GIG)으로 범지구 네트워크의 기반을 제공한다.

**둘째, 주력을 본토에 집결시키고, 세계 도처의 미군기지를 그물망으로 하여 네트워크를 형성 할 것이다.** GPR(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은 장기적인 범세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의 초기 단계이다. 현재의 이 네트워크는 1차적으로 범세계테러전쟁(GWOT)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불안정의 호”(Arc of Instability)를 목표로 하여 이 지역 분쟁시 결정적으로 신속하게 전투를 종결하기 위한 “전력투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네트워크이다. 불안정의 호는 북한-중국-이란-이라크-발칸반도-지중해연안-중앙아시아 일대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 지역은 소위 불량국가, 실패국가, 미국에 대항하는 잠재적 패권 추구 국가 등이 존재한다. 미국은 이들 국가들이 미국에 대항하거나 또는 인접국가간 상호갈등을 일으키거나, 이들 국가를 거점으로 전 세계적인 테러를 획책하는 소규모분쟁(SSC)을 현재 및 미래의 일반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sup>42)</sup> 미국은 이들 위협에 대처함에 있어서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공

39) George Perkovich, "Bush's Nuclear Revolution," *Foreign Affairs* Vol 82 No. 2(March/April), pp. 2-5.

40) 합동부대는 “안전한 통합, 해외운영, 네트워크, 본권화, 적응성, 결심우세, 치명성”을 특성으로 한다고 합동작전 개념에서는 기술하고 있다. 합동부대의 이런 특성을 포괄적으로 보면 ‘해외로 전력투사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 부대’ 라고 해석된다. Richard B. Myers,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2004), p. 15. 참조.

41) *Annual Report*(2002), Antulio J. Echevarria II, *Rapid Decisive Operation An Assumption-based Critique*(U. S. Army College: SSI, 2001) 참조

42) 이근 교수는 “불안정의 호”의 소위 불량국가, 실패국가, 국제적 테러집단들을 “점”으로 개념화하고, 부시 행정부의 안보전략의 특징을 이들 “점”을 관리하는 전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근, “GPR과 한미동맹의 미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과 정책대안』 미래전략연구원 정책분석보고서(2004.6.15)

세적 대응을 모색한다. 압도적인 전력을 유지하여 잠재적인 적의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는 선제공격을 포함 결정적인 성과를 단시간 내에 달성하고자 한다.

GPR 부대배치는 전투투사의 발판으로 그 성격에 따라 4가지로 분류된다.<sup>43)</sup> 1등급은 전력투사 중추기지(PPH: Power Projection Hub)로 네트워크의 중추적 노드이다. 태평양에서는 괌도, 일본 대서양에서는 영국이 이것에 해당된다. 이 기지는 대규모병력이 상주하는 병참, 훈련의 근거지로 전시 및 유사시 비축물자가 축적 된다. 2등급은 주요작전기지(MOB: Main Operating Base)로 네트워크의 핵심적 노드이다. 이기지는 상당한 병력이 상시주둔하고, 초현대식 지휘통제 체제를 갖추며 해외주둔미군의 훈련과 타국의 안보협력을 지원한다. 한국, 독일 등이 이에 해당된다. 3등급은 전진작전기지(FSB: Forward Operation Base)로 소규모 병력이 순환근무 하는 지역이다. 폴란드, 루마니아 등이 이에 해당된다. 4등급기지는 안보협력대상지역(CSL: Cooperative Security Location)으로 상주병력이 거의 없고 유사시 증원을 위해 소규모 훈련장등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유사시 임시적 동맹을 형성하는 노드 역할을 한다.

이런 기지들이 네트워크 개념에 의거 수직 및 수평적으로 연결된다. 수직적으로는 전력투사 중추-주요작전기지-전진작전기지-안보협력대상으로 연결되고, 수평적으로는 수직적 네트워크 구성원 상호간이 동맹 또는 협약으로 구성된다. 중추 노드와 연결된 동맹 및 우방 국가는 미군과 전 지구적인 광역기동군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영국군이 이 역할을 하고 있고 일본도 이 역할을 맡으려 하고 있다. 핵심 노드와 연결된 동맹국 및 우방국가에도 지역 내에서 광역기동을 요구 당 할 것이다. 또한 미군은 전 세계에 산재한 제3, 4급기지에 해당하는 노드를 통하여 유사시는 비동맹국가라 할지라도 사안별로 임시적인 동맹을 형성 할 것이다. 다국적군 개념이 바로 이것이다. 미국은 걸프전,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에서 이런 개념으로 비 동맹국가와도 다국적군을 형성하였다. 이런 개념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미군은 유럽지역에 10만, 아태지역에 10만내외의 병력을 운용하게 될 것이다.

**셋째, 동맹 및 연합군, 우방국, 다국적군, 유관기관, 비정부기구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미래전쟁이 테러와의 전쟁과 같은 비정규전, 전쟁이외의 군사작전으로 초점이 전환됨에 따라 다국적군 유관기관, 비정부기구 등과의 네트워크가 긴요하게 된다. 해외주둔미군은 전력투사의 거점으로 이런 유관 군사조직 및 준군사조직과 본토의 주전력을 유통시키는 노드 또는 그물 망

43)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2004), pp. 55-57.

역할을 하게 된다. 국가간의 연합작전에서도 영구적인 연합(ally) 보다 유동적인 상황에서 다국적군을 더 용이하게 운용할 수 있게 하는 연합(coalition)이 강조되고, 군사동맹도 상황에 따라 신속히 결성되는 임시적(ad hoc) 동맹이 선호된다.

미국은 전 세계를 평정하자 오히려 본토의 국민이 더 치명적인 위협에 처하게 되는 역사적 아이러니를 겪고 있다. 즉 미군은 냉전시대에는 50-60년대는 2전쟁과 1/2전쟁 개념으로, 70년대 이후는 1전쟁과 1/2전쟁 개념으로 반구를 방어하였다. 소련이라는 범지구적위협이 소멸되자 미국은 냉전 이후 10년간인 90년대는 1/2 전쟁의 변형인 2MTW 전쟁개념(원-원전략)으로 전지구를 방어 하였다. 그러나 9.11을 계기로 미국은 원-원 전략의 대상인 지역적인 위협의 가능성도 감소되고, 국가적 조직을 가진 가시적인 적이 아니라 비가시적이고, 냉전시 소규모 우발시태로 명명되던 비정규전 위협이 미군에 주 위협으로 부상한다. 이런 위협은 미국이 가지는 지정학적 이점을 무력화시키면서 직접적으로 미 본토를 타격하게 되어 실제로 미국은 오히려 더 치명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한다. 이에 따라 미군은 오히려 군사력의 적용범위를 확대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양적으로는 감소되거나 현상을 유지하면서, 질적으로는 그 능력을 편제화 및 네트워크화 하여 원심적으로 운용하는 1-4-2-1 전쟁 개념<sup>44)</sup>으로 전지구로부터 오는 작지만 치명적이고, 복합적이며, 은밀하고, 기습적이며, 본토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주는 적과 맞서고 범세계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 다. 지구적 투사군

군사변혁이 완료된 목표군은 전 지구를 포괄하여 군사력을 실시간으로 투사 및 유통시키는 군대가 될 것이다. 면(面)의 군대 특성을 가진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기계화군은 기동성의 제한으로 지역적 능력 밖에는 발휘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냉전 시 미국은 기계화군이 가지는 제한사항 때문에 분쟁 지역에 사전에 대규모의 전력을 주둔시키고 필요한 물자를 사전에 비축시켰다. 특히 유럽에는 30만 가량의 미군을 주둔시켜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였다.<sup>45)</sup> 분쟁이 발생되면 전진 배치된 부대가 지탱하는 동안 대규모의 군대가

44) 1-4-2-1 개념은 본토방어(1), 본토방어를 위한 전방진지개념으로 유럽, 중동 및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연안, 동북아시아의 4개 핵심지역의 전진방어(4), 2개의 중복되는 주요전역에서 “신속한 격퇴” 추구(2), 1개 주전역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개의 소규모분쟁에 동시대응(1)하는 개념이다. 이중 본토방어 개념은 미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으로 테러위협에서 핵 까지를 포함해야하는 냉전시 1전쟁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판단되고, 주요전역개념은 1/2전쟁개념과 같다.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2004), p. 21. 참조.

동원되어 투입 되도록 계획 하였다. 이 때 특정 지역에 배치된 군대는 그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임무가 제한되었다. 왜냐 하면 기동성의 제한으로 한 전구에서 다른 전구로의 전환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냉전시대에는 냉전이후 시대보다 미국이 관할하는 지역이 지구의 반구로 제한되었지만 대규모의 현역 군대유지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냉전이후 군사혁신군(RMA)을 걸쳐서, 변혁군(ATR)으로 혁명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미군은 전 지구를 포괄하는 정보력, 기동력 및 타격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한 지역에 고착되는 전력개념을 탈피하여 전 지구를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유통되는 군대로 변화되고 있다. 즉 냉전시의 미군이 특정 지역에 매이(in place) 군대였다면 미래 미군은 전 지구를 상대로 자유자재로 동시에 투입했다 철수하는(in and out) 군대로 발전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군은 냉전시대 보다 양적으로는 1/2-1/3 가량 군대규모를 축소하고도 냉전에 비교하여 배가된 작전지역(전 지구)을 더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지구적 동시 투사군의 특징은

**첫째, 전 지구적인 정보망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전 지구의 적 동태를 포착 한다.** 미군의 정보력은 공간측면에서는 우주에서 지하로 확대되고, 시간측면에서는 지구상의 어떤 표적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포착 및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지구적 정보력은 우주공간 우세에 의해 뒷받침 된다. 전 지구적인 정보능력은 근본적으로 적이 도피할 수 있는 도피처(sanctuary)를 거부하며, 24시간 감시능력은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게 한다.

**둘째, 전 지구적인 기동 및 타격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현재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재래식 탄두를 발사하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이것은 기존의 전략 핵무기를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조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각 미사일은 발사대 당 수십 발의 재래식 탄두를 우주궤도를 통해 지상의 어떤 지역에라도 1시간 이내에 도달시킬 수 있게 된다.<sup>46)</sup> 또한 미국은 이미 2010년 까지 2시간이내 어디든지 타격할 수 있는 음속의 5 배의 초고속 비행기(HCV)와 무인 무기운반비행체(CAV)를 개발하려고 있다.<sup>47)</sup> 이런 속도라면 이로부터 20년 후에 우주공간이 재래식탄두의 화력투발의 주공간이 될 것이며, 거의 실시간으로 지구상의 모든 표적을 타격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대륙간 타격능력과 전세계 공해 상에서 운용되는

45) Jeffrey Record, *Revising U. S. Strategy*(New York: Pergamon-Brassey's International Publication, 1984), Appendix. 참고

46) Kurt(2002), pp. 15-16.

47) 조선일보(2005. 3. 18), A-23 면.

1,000-1,500 킬로미터의 사거리를 가지는 크루즈 미사일의 결합은 미국이 세계 어떤 지역의 위협 표적에 대하여도 화력으로 2시간 이내에 타격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정적인 승리와 종결을 위한 지상군의 전 지구적 투사속도도 일(日)단위로 빨라 질것이다. 미 육군은 2032년 까지 현재 및 중간군을 목표군(Objective Force)으로 변환하려 하고 있는데, 목표군의 전투력투사(Force Projection) 목표는 본토에 주력(100만 내외의 현역 육·해·공·해병대)을 집결하고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로 분쟁지역에 신속히 필요한 군사력을 일(日) 단위로 유통하는 것이다. 미군은 이를 위해 96시간 이내에 1개 여단, 120 시간이내 1개사단, 30일 이내 1개군단을 세계 어느 곳에든지 투입할 능력을 갖추려고 준비 중이다. 특히 장차 미국의 핵심 전역이 될 소규모우발사태의 경우는 대략 1개사단의 지상군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하여 15일 이내에 결정적인 승리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소규모분쟁 여러 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sup>48)</sup>

셋째, 지하 전장공간에 대한 통제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장차전의 전장이 공중에서 우주로, 지상에서 지하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주로 도시화된 지역의 지하 구조물, 산악지역의 지하 동굴이 주요 거점이 된다는 판단 하에 미군은 이들 지하전장 통제력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지하전장 확보를 위해서 무인 로봇을 개발하고, 지하표적 파괴를 위하여 극소형 전술핵무기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장차 테러분자의 은신처로 채택된 폭탄으로는 파괴가 곤란한 100미터 이하의 동굴기지를 2,000-3,000개로 판단하고 이를 파괴하기위해 방사능누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세대 극소형 전술핵폭탄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sup>49)</sup>

넷째 유통 개념에 의하여 작전지역에 전력 구축절차가 생략되고 실시간으로 부대가 세계 어느 곳 이든지 도착하여 즉각 전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지금 까지 미군은 분쟁이 발생되어 미군의 개입이 결정되면 그 전역에 수 개월간 소요부대를 축차적으로 수송하여 전력을 구축하고, 상당기간 준비하는 시간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하여 대규모 항만과 공항의 유지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미래군은 이런 제한사항을 극복하여 본토에서 직접 분쟁지역에 전력을 투사하고, 투사된 전력은 즉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 하고 있다. 강제진입(forced entry)과 전개=운용(deployment=employment)능력을 구비하게 된다.<sup>50)</sup>

48) *United States Army 2003 Transformation*(2003), pp. chap. 1. 참고

49) Perkovich, pp. 2-5.

목표군으로 변화이후(2032년 이후) 미군은 한 단계 높은 변신을 시도 할 것이다. 지금의 미군이 하이-테크 군이라면, 목표군은 슈퍼 하이-테크 군이고, 2032년 이후 미군은 울트라 하이-테크 군이 될 것이다. 울트라 하이-테크 군은 우주공간을 이용해 기동하고 타격 할 것이다.<sup>51)</sup> 현재의 미군은 하이-테크 군으로 月 단위로 지구기동을 한다. 2032년에 완성되는 목표군은 슈퍼 하이-테크 군으로 日 단위로 지구 기동타격을 할 것이고, 그 이후의 울트라 하이-테크 군은 時 단위로 지구 기동타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군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하였던 어떤 변수가 등장하지 않는 한 장차 지구상의 어떤 장소에도 월, 일, 시간단위로 하이퍼 링크 방식으로 군대를 유통 시킬 수 있게 되어 군사적으로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것이다.

### III. 육군에 주는 함의

#### 1. 네트워크 중심 전쟁

미래미군은 망 중심의 전쟁을 추구한다. 따라서 플랫폼보다는 망,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중시된다. 제대간의 구분이 모호해 진다. 기동부대와 사격부대의 기능이 상호혼합 된다. 예를 들면 포병부대에 보병이 배속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 미군은 전 지구를 지휘 및 통제하는 능력을 구비한다. 통일 이후 우리군 작전 영역은 동 북아시아 전체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보다 긴 리치를 가진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상승적으로 운용 할 수 있는 망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 2. 전 지구 기동 및 타격

미래 미군은 공기저항을 극복한 기동 및 타격을 하게 된다. 범지구정보망(GIG), 범지구 군수지원(GCSS)체계를 가지고 지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작전을 한다. 우리군도 최소한 전역을 커버하는 기동력과 타격력을 보유해야 한다. 순수한 도보기동력에 의한 기동의 시대는 지나갔다. 기계화, 공중 및

50) 이라크 작전 시(OIF) 미군으로 하여금 거의 전개 즉시 전투를 가능하게 한 것은 80% 이상을 점한 스마트 탄약의 사용과 전차 2대 1개 중대의 무장 보병 병력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C-17의 운용이었다. 스마트 탄은 거의 100%에 가까운 명중률로 탄약의 소모를 혁명적으로 감소시켰고, C-17 항공기는 병력의 전개 속도를 거의 실시간으로 단축시켰다. 장차 미군은 지역적 전역이아니라 지구적 전역에서 전개-운용능력을 구비 하려할 것이다. 합동참모부. 이라크전쟁 분석자료(2003)

51) 미국은 이미 2010년 까지 2시간이내 어디든지 타격할 수 있는 음속의 5배의 비행기(HCV)와 무인 무기운반 비행체(CAV)를 개발하려하고 있다. 이런 속도라면 이로부터 20년 후에 우주공간이 재래식탄두의 화력투발의 일반적인 주공간이 될 것이며, 거의 실시간으로 지구상의 모든 표적을 타격 할 수도 있을 것이고, 2032년 이후는 우주공간이 화력투발의 주공간이 되면서 인간이 비행기 발명으로 대기 중에서 중력을 극복하여 전쟁을 입체화시켜 새로운 전쟁의 기원을 제공했듯이, 우주공간에서 공기의 저항을 극복함으로써 우주전쟁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2005. 3. 18), A-23 면 참조.

우주기동 능력 까지 융통성 있게 구비하여야 한다.

### 3. 충격의 소멸

미래 미군은 근접전투 이전에 결정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접촉이전의 원격 전투에 노력을 집중하게 될 것이다. 전통적인 근접전투 즉 충격에 의한 적 부대 격멸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려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감시 및 표적 획득 체계와 원거리 정밀 타격능력의 구비는 미래 전을 준비하는 필수항목이 될 것이다. 우리군도 미래에는 로봇 등을 이용한 원격 전투능력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 4. 여단중심의 전투부대

미래전 미군은 여단이 중심적인 지상전투제대가 된다. 미래전에서 여단은 현재 사단 이상의 전투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여단 중심의 부대편성으로 병력을 절약 할 수 있다. 망 중심의 수평적 부대구조에서는 다수의 여단이 보다 융통성 있고, 신속하게 각종 상황에 대응 할 수 있다. 여단은 지휘제대를 단축시킨다. 우리군의 국방개혁(안)에서도 기존의 연대를 제병협동 능력과 독립전투능력이 강화된 여단개념으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 현재의 사단은 군단이상의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려 한다. 미래전에서 육군은 다양한 형태의 여단을 제병협동부대와 합동작전의 기본부대로 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부대를 편조하여 운용하게 될 것이다.

### 5. 병사들까지 합동작전(체제로써의 병사)

미래전에서 미군은 합동작전을 유기적으로 수행 할 것이다. 그 수행제대가 병사들에게까지 확장된다. 병사 개인이 항공기를 요청하고, 우주통신을 한다. 병사는 체제로서의 종합적인 무기체계가 된다. 우리군도 마찬가지이다.

### 6. 군수와 작전의 통합

미래 군에서 군수와 작전은 유기적으로 통합된다. 전장의 가시화는 최소 개념에 의한 군수지원을 가능하게 하였다. 전통적인 방식인 집적군수가 유통 개념의 군수로 발전된다. 비군사적인 작전활동의 증가에 따라 군수가 주체가 되는 지원 작전과 안정작전이 증가한다. 우리 군에서도 비 군사작전 영역이 점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선진적인 군수지원체계개념과 부대구조발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7. 1. 2, 3, 4 세대 군 전쟁 혼재

전쟁은 상대가 있는 것이다. 비록 미래군인 첨단 정보기술 군인 4 세대 군으로 발전된다 하여도 상대하는 적은 1, 2, 3세대 수준에 머무른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4 세대군은 1 세대 군에 취약하다. 1 세대 군은 2 세대 군에 취약하고, 2 세대 군은 3 세대 군에 취약하다. 미래에서도 선진국 군대는 3세대에서 4세대로 군대의 성격을 변환시키나 후진적 국가에서는 산업화시대의 군대를 그대로 보유 할 것이다. 따라서 미래 전쟁은 최첨단의 4 세대 군과 산업화 시대의 2 세대 군, 심지어는 1세대군, 그리고 현재의 3 세대 군이 혼재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전을 대비하는 데에서는 모든 군대를 첨단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이-로 믹스 개념에 의해 어떤 상황에도 대응 할 수 있는 융통성을 보유해야 한다. 앞 장의 “미래전의 충격” 시나리오는 미군의 과도한 비대칭성의 위험을 단적으로 지적하는 것이다.

## 참 고 서 지

### 1. 국내서적

베이트맨 3세, 로버트 엘, 윤주학 역, 『디지털 전쟁』, 대전 : 문경 출판사, 2000  
윌러스틴, 임마누엘, 한기욱.정범진 공역. 『미국 패권의 몰락』, 서울: 창비, 2004.

### 2. 국내논문

강봉구. “아프간 전쟁이후 미국의 군 변혁,” 『국제정치논총』 제42집 1호, 한국국제 정치학회, 2000.

박기련. “9.11 테러 이후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목표, 수단, 방법 측면,” 『국제정치 논총』 제44집 4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4.

장노순. “교환 동맹 모델링 교환성,” 『국제정치 논총』 제36집 제1호, 한국국제정치 학회, 2002.

### 3. 외국저술

Hardt, Michael and Negri, Antonio. *Empir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 Press, 2000.

Kurt, Guthe. *The Nuclear Posture Review: How is the “New Triad” Now?* Washington D.C.: SCBA, 2002.

Norman, D. Levin. *Do the ties still bind?: the U.S.-ROK security relationship after 9/11*, Santa Monica CA: RAND Cooperation, 2004.

Record, Jeffrey. *Revising U.S. Strategy*, New York: Pergamon · Brassey's International Publication, 1984.

### 4. 외국논문

Bender, Peter. “America: The New Roman Empire,” *ORBIS*(Winter, 2003).

Douglas, K. Zimmerman. “Understanding the Standing Joint Force Headquarters,” *Military Review*(July/August, 2004).

Daalder, Ivo H. “The end of Atlanticism,” *Survival*, Vol. 45, No. 2(Summer, 2003).

Ferguson, Nail. “Hegemony or Empire,” *Foreign Affairs*(September/Oct. 2003).

Mearsheimer, John J. “Back to Future: Instability in Europe After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5, No. 1(1990).

Posen, Barry R. “Command of the Common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8, No. 1(Summer 2003).

Posen, Barry R. and Evara, Stephen Van. "Defense Policy and the Regan Administration," Kenneth A. Oye, Robert J. Lieher and Donald Rothchill(eds), *Eagle Default United States Policy in 1980s* (Boston: Little Brown, 1983).

Perkovich, George. "Bush's Nuclear Revolution," *Foreign Affairs*(March/April, 2003).

Wohlforth, William. "The Stability of a Unipolar System," *International Security*, Vol. 24, No. 1(1999).

## 5. 기타 외국자료

Bush, George W. *President Sworm-In to Second Term*(2005. 1. 20).  
 \_\_\_\_\_, *National Security Strategy*(2002).

Echevarria II, Antulio J. *Rapid Decisive Operation: An Assumption-based Critique*(U. S. Army College: SSI, 2001).

Myers, Richard B.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2004).

Rumsfeld, Donald H. *The Natu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2005).  
 \_\_\_\_\_, *Annual Report* (2004), *Annual Report*(2002), *Annual Report*(2004).  
 \_\_\_\_\_, *Transformation Planing Guidance*(DoD: 2003).  
 \_\_\_\_\_, *QDR*(2001).

Department of Army, *Operational Requirement Document for Future Combat System*(2003).  
 \_\_\_\_\_, *2002 Army Modernization Plan*(2002).  
 \_\_\_\_\_, *2003 Army Transformation Roadmap*(2003).

Office of Assistant Secretary, *Facing the Future: Meeting the Threats and Challenges THE 21st Century*(2005)

TRADOC PM 525-3-25. *The Army's Concept for Maneuver Support Operation for the Future Force.*